

한국 힙합에 나타난 루저 남성성 담론과 여성 혐오

블랙넛 사례를 중심으로

Discourses of masculinities and misogyny : Focusing Korean-hiphop and Blacknut case

저자 (Authors)	김수아, 홍종윤 Sooah Kim, Jong-Yoon Hong
출처 (Source)	대중음악 , 2016.11, 60-99(40 pages) Koren Journal of Popular Music , 2016.11, 60-99(4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대중음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14881
APA Style	김수아, 홍종윤 (2016). 한국 힙합에 나타난 루저 남성성 담론과 여성 혐오. 대중음악, 60-99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1/08 16: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 힙합에 나타난 루저 남성성 담론과 여성 혐오: 블랙넛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홍종운(서울대학교 ICT사회정책연구센터)

1. 서론
2. 이론적 논의
 - 2.1. 힙합과 남성성
 - 2.2. 타자화와 남성성의 구성
 - 2.3. 청년 세대 담론 – 잉여, 루저, 흡수자
3. 한국 힙합과 블랙넛이라는 텍스트
4. 열광 대 멸시: 루저-남성성 재현과 소비
 - 4.1. 진정성 ‘담론’: 주제의 진정성과 힙합의 진정성
 - 4.2. 멸시와 비판: 표현의 한계 또는 남성성의 불안
5. 결론

이 글에서 필자들은 블랙넛의 가사를 통해, 한국 남성 청년의 남성성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블랙넛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는 아니지만, 힙합 장르 내에서는 특정한 한 수용층과 교감하며 그 정서를 대변한다. 필자들은 블랙넛이 노래해온 곡들이 남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구성해내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수용층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지를 고찰하였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주체들은 자학이나 혐오를 선택한다는 것이 현재 온라인 중심의 남성 청년 담론에 대한 진단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힙합 가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블랙넛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찌질이, 루저로 정체화하는 래퍼들의 가사에서는 극적으로 표현된다. 진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매개로 하나의 단일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찬양하면서 그에 도달하기 위한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의 잘못된 원인으로 소수자를 지목하는 비-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돈과 여성을 자랑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 사이의 대비가 존재하는 현재 한국 힙합의 남성성 표상은 사실상 동일 기준의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핵심어: 남성성, 헤게모니적 남성성, 한국 힙합, 여성 혐오, 진정성

1. 서론

2015년 방영된 〈쇼미더머니 4〉의 우승은 래퍼 베이식이 차지했지만, 소위 ‘방송의 수혜자’는 블랙넛(Blacknut)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저스트뮤직 레이블 소속인 블랙넛은 2015년 쇼미더머니에 출연하고 여러 차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MBC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랩스타의 탄생〉에 등장해서는 웃는 얼굴로 돈벌어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할 정도가 된 블랙넛은 적어도 힙합 수용자에게는 ‘랩스타’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블랙넛에 대한 남성 팬덤의 지지가 크다는 것이다. 블랙넛의 레이블 저스트뮤직의 콘서트는 보통의 힙합 레이블 콘서트들과는 달리 남성 관객 비율이 높다. 2016년 2월 13일 악스홀에서 열린 저스트뮤직 레이블 콘서트의 예매자 분포를 보면 남성이 58.4%, 여성이 41.6% 비중을 차지한다. 1월 24일 열린 일리네어 콘서트가 남성 38.7%, 1월 30일 열린 AOMG 콘서트가 남성 17.9% 비율이었던 점과

비교해보면 남성 관객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예매율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다. 콘서트 예매자 중 20대 비중은 AOMG의 경우 60%, 일리네어의 경우 46%인데 반해 10대는 각각 13.7%, 23%로 낮다. 그러나 저스트뮤직은 10대가 44.5%, 20대가 44%로 1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미루어, 저스트뮤직, 그리고 블랙넛의 팬덤은 10대 남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¹⁾

10대 남성 팬덤의 지지가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블랙넛의 일베 관련 논란도 그중 하나로, 그가 현재 10대 남성 이용자가 많은 일간베스트(이하 ‘일베’)를 대표하는 래퍼이기 때문에 블랙넛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그러하다.²⁾ 그런데 저스트뮤직 대표 스윙스는 2015년 8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블랙넛의 일베 이용자 논란과 관련해, “블랙넛이 왜 인기가 많은 줄 알아? 개가 한국 남자 청년의 거울이기 때문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물론 그의 진단이 절대적인 진리일 수 없다. 그런데도 ‘블랙넛’이 한국 남성의 어떤 부분을 대표하거나 표현한다는 점은 힙합 팬덤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필자들은 블랙넛이 비추는 한국 남성 청년의 ‘거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를 단지 ‘일베’라는 비정상적인 집단의 비정상적

-
- 1) 물론 저스트뮤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래퍼는 기리보이이지만, 기리보이는 콘서트를 열면 80% 이상이 여성층 팬이기 때문에, 스윙스가 출연하지 않은 당일 콘서트에서 가장 많은 남성 팬덤을 보유한 래퍼는 블랙넛이라고 추론하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이다.
 - 2) 블랙넛, 일베 제국 확장의 최전방에 서다. 『오마이뉴스』, 2016년 4월 4일자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196587).

정서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자 한다.³⁾ 물론 블랙넛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15년 이후 발표한 곡이 끊임없는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에 블랙넛은 대중적 스타보다는 힙합 수용층의 스타로 보인다. ‘폐북 스타’라는 말처럼 특정한 세대에만 소구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힙합 장르 내에서는 분명히 특정한 한 수용층과 교감하며 그 정서를 대변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글은 블랙넛이 노래해온 곡들을 분석하고, 이 곡들이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남성성 중에서 특정한 유형의 남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구성해내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수용자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힙합과 남성성

음악 장르 중에서도 특히 힙합은 남성성, 그리고 인종과 연결되어 언급된다. 힙합의 진정성 개념에서 남성성 문화는 핵심을 차지한다. 남성 사이의 연대, 과장된 남성성의 추구는 힙합 음악의 고유한 정서 구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상업화된 힙합 음악은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강화하고, 여성의 성 상품화를 당연

3) 일베는 한국에서 커뮤니티 접속자 수로 8위이며 포털을 포함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접속자 수를 지닌 대형 커뮤니티다. 동시 접속자 수가 1만~2만 명 사이인 커뮤니티가 ‘일부’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베일의 기업 일베 넌 누구냐,” 『한겨레』, 2015년 5월 15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1488.html).

시하고, 여성을 열등한 것으로 묘사한다.

화이트(White, 2002)에 따르면, 힙합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젊은 흑인 남성의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것이며, 인종과 남성성의 문제가 교집합 속에서 존재한다. 힙합은 흑인 남성성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미국 대중문화 속에서 흑인 남성은 인종화된 타자의 공포와 환상을 전달하는 매체였다. 그리고 흑인 남성들 스스로에게는 흑인의 사회적 문화적 조건과 그에 따른 생활양식과 문화, 즉 비행과 범죄 그리고 ‘여성 혐오’로 특징 지워지는 문화를 향유하고 선언하는 양식으로 여겨진다.

힙합의 여성 혐오에 대한 분석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담스와 풀러(Adams & Fuller, 2006)는 랩 뮤직이 여성을 성적 대상이자 학대받는 대상으로만 묘사한다고 단언한다. 랩 뮤직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여성 혐오’적 주제에는 여성을 성과 관련해 폄하하거나, 여성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포함하거나, 여성이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처럼 묘사되는 것이 있다. 웨이저와 쿠빈(Weitzer & Kubrin, 2009) 역시, 403 개의 힙합 음악을 분석한 결과 여성을 모욕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 여성에 대한 불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당화, 매춘의 합법화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로즈(Rose, 2008)는 이와 같은 힙합의 특성에 대해, 래퍼들이 “이것이 바로 실재이다”, “실제로 나쁜 여성들이 존재한다”와 같은 답을 내놓는다고 말한다. 즉, 힙합의 ‘여성 혐오’가 자신의 삶을 그대로 그려내는 진실한 랩 음악의 규범과 맞다는 것이다. 거리의 삶을 재현하는 힙합에서, 성적 대상이며 ‘bitches & hoes’인 여성의 존재를 그대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삶의 조건에서 창녀로 폄하당하거나, 어머니로 숭배되는 이분법 속에 존재하는

여성의 의미화가 거리의 진정성과 흑인 남성성을 연계한다. 흑인 이성 애자 남성성에 대한 오랜 기간의 편견은 흑인 가족이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을 당연하게 여기게 해 여성 혐오와 성차별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결과를 낳았다(Chang, 2006).

2.2. 타자화와 남성성의 구성

청년 문화의 성격과 주체의 호명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남성성의 변화와 관련된다. 안상욱(2011)은 청년 세대의 루저 문화가 분명하게 남성적인 문화임을 지적했다.⁴⁾ 젊은 세대의 남성성 담론이 달라지는 것은 서구에서도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현상이다.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본격화된 다. 이제까지 ‘문제되지 않는 성’으로서, 기준점으로서 남성은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비해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은 까닭이다. 1980년대 이후 남성성 연구가 시작되는데(예를 들어, Connell, 1995; Jeffords, 1994; Whitehead, 1999 등), 이는 여성주의의 부흥, 후기 산업사회로 급속한 변화에 따른 남성의 위기, 퀴어(queer) 운동의 성공 등이 관련된다.

코넬(Connell, 1995)은 ‘남성성’의 범주는 문화적 구성물이며 담론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남성성의 유형을 헤게모니적 남성성

4) 물론 이렇게 청년 남성성만을 문제시하는 경향의 문제는 분명하다. 윤보라(2015)는 청년의 위기가 남성의 위기뿐만 담론화되어 여성의 문제를 가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남성성의 위기 혹은 변화가 급격하다는 이유에 의해 계급적 분화가 더욱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 있지만, 동시에 젠더 정치학 차원에서 청년 여성의 문제가 지워지는 문제를 야기한다. 다만 이 글은 목적상 청년 남성성이 힙합 장르를 통해 재현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이 점에 대해 제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hegemonic masculinity), 종속적(subordinate) 남성성, 주변적(marginalized) 남성성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인데, 이는 백인 중산층 이성애자 남성의 남성성을 의미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종속적, 주변적 남성성을 배제하거나 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유지된다(Connell, 1995). 기본적으로 남성성은 결국 자신 외의 것을 ‘타자화’하면서 구성되는 담론적 특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자를 통해서만 구성되는 남성성의 취약성은 2000년대 이후 남성성 연구자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페미니즘 분석은 남성성의 본질적 취약점을 타자화의 문제에서 찾는다. 대표적으로 정신분석학자 초도로우(Chodorow, 2011)는 대상 관계 이론을 전개했다. 그는 남성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아의 일부를 자신의 내부에서 분리해 타자로 밀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남성은 끊임없는 정신 분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타자는 대표적으로 여성이며 여성이라는 대타자와 함께 성소수자 역시 남성의 타자로 존재한다. 김멜(Kimmel, 1994)은 『호모포비아로서의 남성성』이라는 논문에서, 남성성과 호모포비아와 관련된 두려움과 수치를 논한다. 호모포비아는 성차별주의나 인종주의와 연결되는데, 이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를 벗어나는 것, 즉 이성애적 실천이 남성성의 구성에서 핵심이다. 초도로우가 남성성의 폭력이라고 의미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타자를 배제하기 위한 남성성의 실천과 관련된다.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권력 관계에서 소외되면 과도한 남성성을 발현해 이를 보충하려는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Chodorow, 2011).

한국의 경우는 특히 전쟁과 식민의 경험이 남성성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희 정권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성차별적으로 발전 개념이 동원되면서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강화되

고 이에 따른 전쟁 경험의 남성성 상실이 회복되었다(박이은실, 2013). 하지만 이는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즉 경제적 성공이 보장될 때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경제 위기는 남성성의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게다가 엄기호(2011)에 따르면, 소비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요건에 돈과 외모, 학력과 지위 등 기존과는 또 다른 소비 자본주의사회의 기준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남성들이 받는 좌절감이나 상실감은 더욱 커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감은 사회적 분위기를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왜곡된 능력주의가 존재한다. 어떤 주체도 언제든 약자와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사실상 기득권 지배계급의 지배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비판 없이 이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청년 남성층은 성별 사이의 차이와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절함을 자처하고 그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한다(천정환, 2016).

한편, 나약과 케힐리(Nayak & Kehily, 2008)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특히 젊은 청년 남성이 경험해야 하는 일자리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 즉 전통적 ‘일’이 아닌 서비스직, 감정 노동직에 대한 적응 문제에 주목한다. 지금까지의 남성성의 교육이 ‘서비스’를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 정체성, 이를 통해 느끼는 자존감, 헤게모니적 남성성과의 괴리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⁵⁾

5) 물론 이는 현재의 감정 노동이 가지는 착취적 성격을 긍정하는 의미는 아니며, 모두가 감정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전통적 남성성의 교육을 받은 남성 입장에서 남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비하되어온 일을 해야

계급투쟁마저 직업과 권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문화와 정서 차원에서 진행된다. 남성성의 위기와 이에 따른 갈등은 점차 정서와 문화 차원으로 집중된다. ‘여성 혐오’ 또는 혐오의 정서와 타자의 배제를 추동하는 문화의 변화는 이처럼 소위 ‘남성성의 위기’와 관련된다.

현재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은 양극화되어 있다는 주장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⁶⁾ 상층계급에 속하는 남성은 여전히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체현하고 이를 규범적인 것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이 하층에 속하는 남성이 여성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느끼는 불만과 불안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위기는 이러한 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여러 사회적 요건과 변화에 따라 이 규준에 개별 남성이 맞추어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3. 청년 세대 담론 — 잉여, 루저, 흠수저

청년 세대는 흔히 기성세대와 갈등하면서 저항적이고 대안적인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 상정되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경제 체계 아래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이후 청년 세대는 주로 위기와 관련되어 정의된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대, 계급, 불평등은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88만원 세대, 삼포 세대, 이태백 세대 등의 명칭은 고용 불안, 한국 가족의 구조 변화, 젠더 갈등의 심화 등을 나타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성성의 불안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6) 예를 들어, 우에노 치즈코의 강연에 대한 반응이 대표적이다(<http://pgr21.com/?b=8&n=65631>).

내는 말이다.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잉여, 루저 문화 등이 청년 세대의 변화와 관련해 논의되었다. 경쟁 위주의 대학 입시 교육에서 탈락하거나, 이 때문에 취업 경쟁에서 탈락하는 청년 세대를 ‘잉여’로 명명하고, 바우만적 의미의 ‘쓰레기’로 의미화하는 시도가 있었다(구미정, 2013). 한편, 대중문화 연구자들은 이들 ‘잉여’의 ‘일’이라는 모순 상황에 주목한다. 잉여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 생산관계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잉여짓’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김상민(2014)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무력감을 지니며, 지금은 즐겁지만 희망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잉여의 특성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점에서 창조적 전유의 방식으로 향유 대상의 소유를 지향하는 오타쿠와는 다르다.

김수환(2011)은 잉여가 ‘자기비하적’ 성격을 가지며, 남과 다른 길을 가는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라 어쩔다 보니 정도에서 떨어진 수동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주변화된 것이라기보다 버려진 것,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의 잉여가 된 청년 세대가 적극적인 ‘잉여짓’의 수행을 통해 문화 코드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무언가를 계속해낸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잉여’에게서 정치적 주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무위를 통해 단지 쓸모없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잉여’들은 촛불 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저항운동의 주체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임태훈, 2012).

루저는 잉여와는 약간 다른 의미로 대중문화의 코드가 되었다. 한윤형(2013)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학벌 사회에서 학벌 자본을 획득했는데도 취업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열패감을 다룬다.

이 열패감과 부끄러움을 유머라는 틀을 빌려 표현하는 것이 루저 문화라고 하였다. 자기 학대적인 냉소가 기본이 되는 루저 문화는, ‘엄친아’들의 세상에 균열이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순간에는 정치적 각성의 가능성을 가질 수도 있다. 2010년대 초반 장기하를 비롯한 밴드 음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자발적 루저의 정치적 가능성을 표현했다. 최지선(2010)은 이러한 루저 문화가 한편으로는 승자가 되지 못한 두려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승자 문화의 일부라는 시각, 세대 담론의 과잉으로서 상업적 이용이 되는 루저 문화에 대한 우려 등 양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한국 영화의 경우 루저/약자는 한국 대중이 열렬히 환호하는 주인공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함춘성(2012)은 변변치 않은 영화 주인공, 즉 루저를 사전적 의미로 보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과 관련해서도 삶에서도 한 번도 성공적이었던 적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일련의 한국 영화 흥행작에서 이러한 변변치 않은 남성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안상욱(2011)은 루저 문화의 중요한 정서가 유머와 해학에 있고 이는 남성 중심 문화의 특성과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에서 루저 문화의 특성을 찾는다. 루저 남성성은 경제 위기로 가시화된 남성의 위기에서 출발하며 가부장적 남성성을 패러디하는 양상, 남성 동성 관계에 대한 상상의 증가, 이성애 연애 각본에 대한 불만과 여성 혐오, 사도마도히즘적 남성 권력 확보 노력 등을 그 문화적 특성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그의 진단에 따르면, 루저 문화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남성성의 변화와 관련된다.

저성장 사회는 직업의 위기를 가시화하고 이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위치로서 자신의 권위를 구성

했던 남성성의 위기를 낳는다. 2008년 이후로도 계속 지속된 경제 위기는 이러한 남성적 루저 문화의 유머와 자조를 좀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헬조선’의 문제는 신계급사회로서의 각자도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에 있고, 이 때문에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흙수저’는 자학적인 개념이며 더 이상 이 사회가 나아지기 어렵다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절망도 포함한다(오찬호, 2016). 김상민(2016)은 ‘헬조선’ 담론이 잉여나 루저 문화가 가졌던 어쩌면 정치적인 수 있는 가능성을 무화하고, 주체화되지 못한 차별체처럼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만 기여하는 현재 청년 문화의 변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베’로 대표되는 일부 청년들은 — 비록 일부인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일베 이용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들과 다른 정서 구조를 갖는지 역시 논란이 있다고 해도 — 자신을 주류 문화로 편입될 수 없는 하위 주체로 인식해 자조하지만, 그 실패와 좌절을 소수자, 타자에게 귀인하는 변질된 잉여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헬조선의 문제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와 같은 새로운 계급적 분화들과 함께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킨다. 김홍중의 진단은 현재의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 세대에게 가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가난과 비참을 싸워서 넘어설 수 있는 행위성을 가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래가 이미 파산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김홍중, 2016). 따라서 ‘헬조선’ 아래에서는 ‘죽창’으로 서로를 죽이는 게 답이거나, ‘킹찍탈(킹무성 찍고 탈조선)’로 대표되는, 이 나라가 망해야 한다는 정서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이 담론은 단순히 헬조선에서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다는 다른 인간학(하승우, 2016)과 같은 소박한 기대를 통한 저항의 정치성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힙합과 블랙넛이라는 텍스트

이 절에서는 블랙넛이 자신의 랩을 통해 위와 같은 루저 문화의 변화와, 청년 세대의 남성성을 힙합의 자기 서사, 즉 진정성 개념을 매개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블랙넛은 2015년 〈쇼미더머니〉를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랩 커리어는 상당히 긴 편이다. 2006년 소울커넥션의 멤버였다고 알려져 있고, 2008년부터는 ‘김콤비’⁷⁾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 2009년부터는 힙합플레이야 자작 녹음 게시판에서 ‘MC기형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2012년 저스트뮤직 레이블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블랙넛’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의 활동 시기는 루저 문화가 대중문화의 중요한 자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리며,⁸⁾ 최근의 인지도를 얻게 된 시점은 일베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는 시점과 일치한다. 블랙넛은 〈쇼미더머니 4〉에서 이름을 알리면서, 각종 축제에 섭외되는 대중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페이스북 팬 페이지의 좋아요 수는 18만 정도다. 현재 한국 힙합 장르 내에서 인기 있는 레이블 일리네어 레코즈의 좋아요 수가 26만, 힙합 장르 썬 내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레이블인 비스메이저 레이블의 좋아요 수가 2만 정도인 것에 견주어볼 때 블랙넛이 한국 힙합 신 내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지고 팬이 많은 아티스트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작업은 일리네어 레코즈가 표방하는 스웨거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자랑과 다른 주제적 특성을 보인다. 〈표 1〉은 블랙넛의 작업물

7) 김쫓키와 김폭팔로 구성된 듀오라고 소개된다.

8) 장기하와 얼굴들은 2008년부터, 무한도전 시리즈는 2006년에 시작하여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공하게 된다.

<표 1> 블랙넷 음악의 가사 주제 분류(괄호 안은 백분율)

주제 활동 시기	자학, 상처	랩 실력에 대한 자신감	‘여성 혐오’	성적 판타지, 성적 자신감 없음	헤이터 혹은 동료 래퍼 비판	타인에 대한 폭력	노력과 희망	효도	성소 수자 혐오
MC 기형아	15 (20.5)	10 (13.8)	9 (12.3)	9 (12.3)	6 (8.2)	7 (9.6)	6 (8.2)	5 (6.9)	6 (8.2)
블랙넷	9 (20.9)	8 (18.6)	6 (14.0)	4 (9.3)	5 (11.6)	3 (7.0)	3 (7.0)	4 (9.3)	1 (2.3)
합계	24	18	15	13	11	10	9	9	7

에서 드러나는 주제적 특성을 분류한 것이다. 과거 작업물 경우, 특정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것 중 현재 접근 불가능한 것이 있어 MC 기형아 시절의 작업물로 유튜브나 기타 매체를 통해 공개된 16곡을 대상으로 했다. 한 곡에 여러 주제가 등장할 경우 중복으로 표기하였다. 블랙넷의 경우 음원 사이트에 블랙넷이라는 랩네임으로 등록된 곡을 대상으로 했으며, 피쳐링 곡 역시 포함해 총 25곡을 분석하였다.⁹⁾

그의 랩 네임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정상적인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의 이탈”을 그의 정체성의 주요 자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키가 작거나, 기형이거나, 성기로 축소되거나 하는 형식이다. 또한 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gaygaykim’이다. ‘남성’이 되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작업물에서 가장 지배적인 정서는 ‘자학’이다. 그런데 루저 또는 잉여 문화의 특징으로서 자조우린, 아마 안 될 거야…)보다는, 블랙넷의 작업물에서 드러나는 정조는 자학적인 특성이 훨씬 더 강하다.

9) 블랙넷이 발표한 25곡 중 3곡은 쇼미더머니 시즌4 경연곡이다.

블랙넛의 텍스트는 안상욱(2011)이 ‘루저 남성성 텍스트’로 부른 루저 문화의 흐름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적 특성을 갖는다. 그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자학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폭력적인 형태로 가상의 적을 향해 남성성을 표출하려 한다. 이성애 연애 각본에서의 실패 역시 자신의 주요 정체성 자원으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여성 혐오’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자학이 흔히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남성성은 항상 스스로를 타자화해 구성하기 때문에, 타자화되어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들을 외부에 귀속해 그 부정적인 속성을 멸절시키려 하기 때문이다(Chodorow, 2011).

블랙넛의 가사 주제에 대해서 멜로(2015)는 호전성을 키워드로 분석한 바 있다. 멜로는 그의 삶과 구조적 요건에 주목하는데, 블랙넛은 호남 출신의 고졸 백수이고, 170이 간신히 넘는 키와 깡마른 체격의 소유자이며, 외모가 특출하지 않고 부모님은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랩을 과격하게 해 주목을 받는 방법뿐이었으며, 이는 빈민가에서 오로지 랩이나 농구를 통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던 흑인의 운명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그는 ‘모쏨아다’를 인터넷 시대에 표출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하나로 보고 블랙넛이 이를 표상한다고 분석한다.

멜로(2015)의 분석처럼 구조적 조건에 대한 일종의 자기 구원 노력으로서 블랙넛의 랩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들은 이 ‘자기 구원’의 맥락에서 채택된 자학 정서와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내용과 구성 과정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블랙넛의 서사는 단순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약이 가능한데, “사회경제적 약자의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는 고통이 자학으로 이어지며, 이 자학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분노나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성공하고 싶고, 성공을 통해 효도하고 싶다”이다. 이 서사와 관련해 논의되어야 하는 지점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 번째 질문은, 남성성의 구성에서 연애의 실패는 왜 그렇게 문제되는 것인가? 소비 자본주의사회의 연애가 계급과 관련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애와 사랑 담론의 주요한 분석 결과다. 그러나 모든 계급적이며 구조적인 모순이 연애와 사랑으로 축약되거나 환원될 수는 없다. 그런데 블랙넛의 자학과 찌질함은 성적 자신감이나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즉 모든 불만과 고통은 사랑과 연애에 집약된다는 점이 현재 한국 남성성의 담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연애의 실패는 남성성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남성이 여성을 획득하는 것을 정상적 규범으로 삼아온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 바로 남성의 실패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연애의 실패가 남성성의 위기가 된다.

물론 블랙넛이 표현하는 것이 ‘연애’만은 아니다. 어떤 경우 블랙넛은 짝사랑의 슬픔을 노래하고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대상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그리거나 단순한 성적 욕망을 강조하기도 한다.¹⁰⁾ 그러나 이러한 가사 표현은 여전히 그가 ‘아다’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격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구원하는 사랑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8만원〉의 가사가 대표적인데, 그는 성욕을 해소하는 성매매를 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을 생각하며 돌아오고 있다.

10) ... 나도 해보고 싶어 여자 손잡고 모텔로 ... 길바닥에 ... 애들은 많은데 내가 먹을 건 없네(MC 기형아 - 섹스하고 싶어요).

어쩌면 영원히 혼자일 것 같은 불안함에
8만원을 주고 갔네 XXX을 향해
잘 생각했어 친구들의 힘찬 응원과 함께
씩씩하게 걸어가 마침내 입구 앞에
심장이 떨리고 설레이네 술기운 탓에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오늘 밤엔

(중략)

속옷만 걸친 채 창문 앞에 앉은 언니
앞에 서니 왜 또 망설이고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내 욕구를 채우긴 아깝지
발을 돌려, 그래 난 원해 진실한 사랑이
뭐 이런 새끼가.. 하는 표정 짓는 친구들
8만원으로 내가 쓸게, 가서 한 잔 더 해

(블랙넛, 2016년 발표곡 8만원 가사)

불행하게도 이는 ‘여성 혐오’의 전형적인 기반으로서 ‘성녀/창녀’라는 이분법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 남성성이 습득되고 구성되는 방식이 어떻게 ‘여성 혐오’ 논란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예시다. 우에노 치즈코(2010/2012)는 호모소셜(homosocial, 남성 간의 연대) 개념을 통해 남성들의 인정만이 남성을 남성으로 만들고, 그 인정의 기반은 여성을 소유하는 능력에 있으며, 이때 여성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 여성이어야 함을 말했다. 위의 가사가 표현하듯이, 여성을 돈으로 소유하는 것, 성욕의 해소는 호모소셜에 의해 지지된다. 블랙넛의 친구들이 블랙넛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응원하고, 못할 경우 비난하는 것은 호모소셜의 한 사례다. 이 노래 가사에

대해서 딱 블랙넛만 할 수 있는 노래¹¹⁾라는 반응은 블랙넛의 캐릭터가 이렇게 ‘연애에 실패한 또는 시도하지 못한 남성의 짜질함’을 그리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한편 블랙넛은 현대 사회의 변화, 감정과 정동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남성성의 대응 문제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른바 남성의 위기 담론이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 정규직의 몰락, 가장으로서의 위치 불안을 지적하는 한편, 주목해야 하는 ‘남성성의 위기’는 가장으로서 남성성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당연시되는 남성성의 규범 자체를 흔들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나약과 케힐리(Nayak & Kehily, 2008)의 분석에 따르면, 문제는 정규직 진입에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성성, 여성의 것으로 여긴 감정 노동과 서비스직을 남성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변화에 있다. 이제까지 남성성이 아니라고 비하된, 감정과 돌봄이라는 남성성 외부의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다. 특정 방식으로 규정된 권위주의적 남성성의 교육을 받은 남성이 직업과 같은 공적 과정부터 연애와 같은 사적 과정에 이르기까지 적응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한국의 남성성이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틀 아래에서 극도로 규범화된 헤게모니적 남성성 모델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이 차이가 주는 고통은 클 수 있다. 아래의 가사는 블랙넛의 자학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그는 ‘말을 걸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 감정 교환 능력의 부족은 그를 ‘짜질이’로 만든다. 이를 ‘용기가 없어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규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소통 능력은 (남성의) 용기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권위주의적 남성성의 기준

11) “방금 블랙넛 선공개를 듣고 왔습니다”(http://hiphople.com/kboard/6783000).

아래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성적인 것, 타자의 것으로 내버려진 것일 뿐이다.

나만 빼고 지들끼리 서로 소개시켜준 여자들도 있네

야 왜 나는 소개 안 시켜주니?

아무 말도 안하고 강 웃지 무슨 뜻이니...

처음 몇 마디는 잘 나누다가 갑자기

나만 말이 없어져서 혼자 술잔을 잡지

(여자 사귀고 싶다-MC 기형아)

블랙넛은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 없어 ‘보이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진 존재들을 상상하며 그 존재들에게 소유되는 여성을 상상한다. 이에 따라 블랙넛은 연애의 실패를 ‘외모, 금전’을 따지는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쉬운 길을 택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규범 내에서 관계성에 대한 것이 없고 관계 맺기와 감정 노동에 서툰 것을 남성성으로 규정하는 문화 속에서, 자학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이르지 못한 나의 조건’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며 그 책임은 자신이 아닌 그 조건을 요구하는 타자에게 향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성애 연애 서사의 문제는 단순히 사적 감정의 담론이 아니라 남성성, 여성 혐오, 여성성의 문제를 구성하는 핵심 축이다.

두 번째는 여전히 남성성과 성공이 연결되며, 이는 더 나아가 가족의 성공으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위치 또한 문제인데, 블랙넛은 ‘엄마는 뭘 하지 말라고 했다’와 ‘엄마가 그랬다’를 자주 사용한다. 그의 공개된 집안사(쇼미더머니 4)를 고려해볼 때, 성공과 어머니라는 표상, 한국적 가족주의는 중요한 그만의 서사 요소이자 한국적 특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사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가져야 하는 부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규준과 관련된다. 한국의 경우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정상적 삶의 궤도는 좋은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에 있다. 블랙넛은 우선 첫 번째 경로에서 이탈했고, 두 번째 경로에서 본격적으로 자학을 시작했다. 이 자학의 죄책감이 어머니를 향하는 것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가족주의 담론의 변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경제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가족 담론의 대응은, 위기는 남성의 문제로 삼고(남성화), 그 극복에 관한 책임을 지는 주체, 또는 그 극복을 위한 권력이 여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로 만드는 사영역화의 특성을 갖는다(박혜경, 2011).

가설적이지만 일베 이용자를 분석한 김학준(2014)이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남학생을 일베 이용자로 이야기했을 때, 그가 주목한 것은 ‘아버지의 성공’을 자신도 이루기 원하는 중산층 남성 주체였다. 블랙넛의 서사에서 ‘아버지’가 사라진 것은 이런 점에서 상징적이기도 하다.¹²⁾ 가계 빛에 시달리는 그에게는 이미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모델이 무너진 상태인 것이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구원자이자 자기 구원할 대상이 되고, 이미 사라진 헤게모니적 남성성 모델을 소망으로 삼을 필요 없이, 자신의 현재가 그게 아니라고 발악하듯 말하는 것이 그의 서사에는 진실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입장에서 진실한 이 서사가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일하는 어머니를 연민하는 동시에, 자신이 경험하는 남성성

12)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 <쇼미더머니 4>에서 송민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길을 알려달라고 말한다. 그에게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모델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는 YG라는 거대 기획사로 치환될 수도 있다.

의 위기를 구원하는 주체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결국 블랙넛의 텍스트를 여성 혐오적 자학 서사로 만든다는 점이다. 남성성의 위기를 여성을 통해 보충하는 것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성성의 위기 극복은 헤게모니적 남성성 모델이 갖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남성성 모델을 재구성해 나가려는 노력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 남성성의 타자로서 상정된 여성을 소유하거나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세 번째는 주제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비프(beef)¹³⁾와 관련된 논란들이다. 〈part2〉라는 곡에서 블랙넛은 자신을 비판하는 래퍼 제리케이, 평론가 집단(리드머와 힙합엘이 필진)에 대한 비난을 담았다.¹⁴⁾ 이 곡은 이전에 발표한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라는 곡에서 MC 메타 등 힙합 1세대를 비판하고, ‘여성 혐오’적이고 소수자 혐오적인 가사를 썼다고 비판을 받았을 때 자신을 가장 열심히 비판한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타인에 대한 공격과 다른 래퍼에 대한 비판이 맞물린 주제 영역으로, 특히 기성세대와 기성 윤리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기성 세대에 대한 반감은 실제 10대의 주요 정서이며, 일베와 같은 청소년 중심 사이트의 핵심 공감대이기도 하다. ‘틀딱’¹⁵⁾이나 ‘선비’, ‘꼰대’

13) 흔히 디스로 표현되는데 다른 래퍼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가사를 담은 곡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4) “XXX 퇴리케이는 판지를 걸지”, “그래서 너는 불렀나 봐 미니가 CM송”, “보지도 않고 혼자 펼치는 뇌내망상”, “그러면서 지는 예능 전문 래퍼 데프콘이랑 마리텔 나와서 낄낄거리네”, “너가 싫어하니 대중음악쫓목질상은 평생 못 받겠네”, “필요 없어 니들의 쓰레기 feedback XXX같은 개소리 씨부린 bluc도” 등.

15) 틀니를 딱딱거리한다는 말은 단지 노년층을 의미한다는 말은 아니고, 윗 세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40대인 MC메타의 경우에도 틀딱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에 대한 반감은 한편으로 ‘여성 혐오’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양성 평등연대는 2012년 대선을 앞둔 선언문에서 “여성을 약자로 만들고 무한하게 지원해준 기존 정부”와 그에 투표하기를 독려하는 ‘꼰대 세대’를 적으로 돌린다. 소위 386세대의 정치 과정은 여성가족부 신설로 축소되어 인식되며, 이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만들어낸 원흉으로 꼽힌다.¹⁶⁾ 이들의 정서와 마음 구조에서 문제는 사회에 무임승차하려는 여성과 소수자가 책임져야 한다. 평론가 블럭(bluc)이 블랙넷의 소수자·여성 혐오를 비판하고,¹⁷⁾ 래퍼 제리케이가 강력하게 블랙넷의 혐오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¹⁸⁾에서 이들은 ‘꼰대 세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블랙넷의 서사와 텍스트에 대한 반응이 힙합 팬덤 내에서도 갈리는 상황이지만, 블랙넷의 서사는 대체로 힙합의 진정성 틀 내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그의 표현에서 드러나는 과격성이나 그가 그려내는 현실은 인정 또는 동일시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멜로(2016)는 블랙넷이 실제 삶과 결부되어야 하고 언행일치, 솔직함 등을 강조하는 힙합 정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면서, 폭력적 표현과 결부되는 이것이 힙합이라는 장르적 특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힙합 팬덤의 반응을 정리해 분석하고자 한다.

16) 남성연대 남녀평등 대한민국 국민행동 1117(2012.11.12). <http://naya7931.tistory.com/644>.

17) Bluc. 블랙넷,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2016.1.15).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6012412277292253>.

18) [인터뷰] 제리케이, ‘힙합도 사회의 일부, 변할 건 변해야 한다. 힙합플레이야 매거진(2016.04.04). <http://magazine.hiphopplaya.com/magazine/article/view.html?category=magazine&category2=&mode=text&page=1&sort=signdate&num=20083&keyfield=&key=>.

<표 2> 블랙넛에 대한 게시판 의견(주제별)

주제	가사 주제의 진정성	독창성, 캐릭터 인정	혐오 및 폭력성 비판	랩 실력 인정	힙합의 진정성	일베 비판	랩 실력 비판	기타	일베 아님 (혹은 문제 아님)
글 수 (%)	56 (24.7)	55 (24.2)	36 (15.8)	28 (12.3)	23 (10.1)	13 (5.7)	6 (2.7)	6 (2.7)	4 (1.8)

4. 열광 대 멸시: 루저-남성성 재현과 소비

이 절의 주요 분석 대상은 힙합엘이(hiphople.com)의 국내 게시판에 공개된 게시글이다. 싱글 ‘100’이 발표된 이후부터 논란의 피쳐링 곡 〈인디고 차일드〉가 발표된 기간까지(2014.8.8~2016.4.5), 블랙넛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 중에서 분석 대상을 선택하였고, 이중 단순 정보 공유를 위한 게시글은 제외하였다(음반 정보 제공, 팬 아트, 질문 등). <표 2>는 최종 분석 대상이 된 게시글 201건의 주제 분류를 표기한 것이다.¹⁹⁾

4.1. 진정성 ‘담론’: 주제의 진정성과 힙합의 진정성

장르 음악에서 진정성은 중요한 주제이며, 장르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아티스트의 곡과 행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힙합 장르에서 진

19) 본인의 의견 없이 링크만을 제시한 것은 제외하였고, 주요 화제가 블랙넛이 아닌 경우에도 제외하였다. 관련 주제가 두 가지 이상 등장할 때는 중복 표기하였다. <쇼미더머니 4>를 기점으로 전후 시계열적인 변화가 있고, 댓글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특히 블랙넛과 관련된 게시글에서는 댓글에서의 입장 차이와 논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댓글에 대한 분석이 추후 필요하다

정성은 ‘나의 이야기’라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블랙넛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블랙넛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솔직하게 한다는 것’에 있었다.

전블랙넛만큼 진솔하게 가사쓰는 친구 없던 것 같던데 스윙스도 참 안에 있는 감정 그대로 보여주는 데 그것보다 더 한 게 블랙넛이라고 봐요²⁰⁾

다른 랍퍼들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솔직한 가사가 너무 매력있어요
항상 꾸밈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커²¹⁾

더 나아가 이들 수용층은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에 자신을 동일시 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찌질한데, 블랙넛은 그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특히 랍이라는 형식으로 예술화했기 때문에 멋있다는 것이, 블랙넛의 팬덤이 느끼는 주된 감정이다.

여튼 나는 천성이 찌질이라 블랙넛에게 마음이 간다. MC기형아 시절 부터 지금까지 쭉 찌질한 그 모습에도 마음이 간다. 그렇게 *나 병* 같지만 자신의 병*력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은 물론 랍할 땐 딴 사람이 되서 당당해 지는 그 모습 역시 *나 멋있다. 내가 생각할 땐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도 찌질이가 *나 많기 때문에, 알고보면 우리는 다 슈퍼찌질이기 때문에 블랙넛이 빨릴 수 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러므로 나는 찌질의 왕, 찌질이 대표 블랙넛을 전격 지지하고 응원한다.²²⁾

20) 블랙넛말인데요(<http://hiphople.com/2533416>) 게시글의 댓글(2014.8.13).

21) 블랙넛 좋네요(<http://hiphople.com/2580020>) 게시글의 댓글(2014.8.18).

22) 블랙넛은 찌질이다(<http://hiphople.com/4828718>) 게시글(2015.8.22).

이러한 반응은 “블랙넛은 우리 청년 남성의 거울”이라는 스윙스의 말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게시판의 반응은 길거나, 상세하거나, 설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찌질함’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명료하게 글로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 정서는 세대 문화적인 것으로 이미 세대 내에서는 확인되고 공유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블랙넛의 곡에서 받은 감동을 언급하거나 그 독창성을 칭찬하는 게시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나나 블랙넛 같은 사람들은 집 방안에서는 강간범 카사노바 정력왕이지만 바깥 현실 세상에 나가면 말 한마디 어버버 제대로 못하는 병신이다. 그리고 블랙넛은 자기가 병*인걸 노래에 대놓고 쓴다.²³⁾

한 고1까지 진짜 센 애들한테 짓눌려 살았던 거 같음 존나 멋있게 그 뒤로는 그게 싫어서 운동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구요. 집안사정 안 좋은 것도. 망할 은행들이 이자를 올려댈 때마다 빠친 것도 주위에 랩한다고 하면 ‘니가 무슨 랩?’하면 그냥 웃고 집에 와서 혼자 답답하던 것도 절 보는 것 같아서 음원으로 들을 때와는 또 다른 신선한 기분이었어요.²⁴⁾

바깥 세상에 나갔을 때 말을 못하고 집안 사정이 안 좋거나, 체격 조건이 안 좋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팬덤의 반응은 “내가 할 수

23) 블랙넛이 위대한 아티스트인 이유(<http://hiphople.com/6769183>) 게시글(2016. 3.29).

24) 블랙넛 이번 무대 거울 보는 기분(<http://hiphople.com/4823904>) 게시글(2015. 8.22).

있는 건”의 무대를 보고 어느 순간 나도 몰래 울컥하는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블랙넛이 현재 세대의 남성성의 잉여들, 루저들을 대변하거나 표상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아래의 게시글은 ‘일베’를 블랙넛의 표상으로 보고, 일베가 블랙넛에 열광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베의 이용자를 5포 세대 남성으로 규정한다.

5포세대.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보*, 김*녀, 민주화 이런 일베용어들을 일상적으로 쓰는게 아무렇지 않은 세대. 정확히 말하면 10대~20대 초중반까지의 일베하는 남자 유저들의 세대. 이 세대가 지금 정확하게 블랙넛의 팬층과 겹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죠. 지들하고 똑같거든. 지들하고 똑같이 못생겼고 지들하고 똑같이 배운거 없고 지들하고 똑같이 귀찮도 없고 지들하고 똑같이 아다에다 지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여자만 보면 김*녀 운운하며 증오하는 그냥 존나 짜질하고 학교 다닐때는 힘센애들한테 뺨서*하던 그 새끼들 바로 그 새끼들이 지금 블랙넛이고 그 팬들이고 이들은 존재적으로 서로의 위안이자 무조건적인 방패막이가 됩니다, 애네들은 블랙넛이 잘됐으면 좋겠는거거든 블랙넛처럼 에미** 무개념 최하층 사회 밑 바닥 인생이 잘되는게 지들에게도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니까²⁵⁾

이렇게 블랙넛이 현재의 일정한 세대 남성성을 대변한다고 보면 이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표현을 쓰거나 혐오를 동원하는 것 역시 힙합 장르의 진정성의 담론 내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25) 블랙넛에 열광하는 일베 제너레이션(<http://hiphople.com/6128963>) 게시글 (2016. 1.19).

보인다. 예컨대 다음의 게시글에서 글쓴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해내는 것이 ‘리얼 MC’라고 하며, 특히 이를 곡으로 표현하는 것을 진정성 있는 MC의 자격으로 뽑는다.

무슨 느낌 말하고 싶은지도 알겠음. 솔직히 곡 처음 들으면서 좀 어후… 거부했지만. 블랙넛이 자기 길 곧조있게 지켜나가는 리얼 MC라는 것은 확실함. 진짜 지독하게도 지독하게도 자기 길 감 대단함²⁶⁾

리얼힙합 ‘인스타’갱스터 mc들은 넷상에서 썬척 정치질 디스 집에앉아서 키보드치면서 곡으론왜안하냐 질문에 만들시간이야갑다는 pu**y 같은 지랄병신같은 핑계대는 기집애들보다 블랙넛이 백배천배 낫네요. 암말없이 곡으로 다말해주네요 굳 멋집니다²⁷⁾

이처럼 자신의 이야기라는 진정성 담론과, 이를 음악으로 내고 자기가 정한 캐릭터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진정성이 어우러져, 이것이 블랙넛에 열광하는 이유가 된다. 이 경우 힙합 장르의 진정성이라는 조건 아래 윤리는 문제되지 않으며 혐오나 공격적인 표현 역시 중요하지 않다.

블랙넛 싫어해도 되는데 힙합 음악을 듣는데 있어서 음악을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무슨 발라드나 아이돌 음악 평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밋글 다는 겁니다. 편라에비투에 신나래가 나오는 건 설정이잖아요? 신

26) 블랙넛만큼만 해라(<http://hiphople.com/6789377>) 게시글의 댓글(2016.3.31).

27) 적어도 찌질라이트들은 블랙넛보고 배워야댐(<http://hiphople.com/6784808>) 게시글(2016.3.31).

나래는 일종의 복선이에요. 파트투를 뺀기 위한. 파트투는 배틀랩입니다. 적들과 싸우는 랩이에요. 적이랑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윤리가 필요한가요? 하다못해 농구나 축구선수들도 트레이닝 토크하는데 래퍼가 배틀 뜨는거면 그정도는 해야죠.²⁸⁾

힙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윤리와 혐오를 넘어 블랙넛의 이야기는 진정한 힙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블랙넛 팬덤의 이야기 속에는 ‘찌질한 남성’이라는 상태에 대한 세대적 공감과 동일시가 있다. 이에 따라 그가 발화하는 꿈이나 욕망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 헤게모니적이지 않은 주변화된 젊은 세대의 남성성은 연애 실패를 남성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실패로 가정하고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 해소 방법은 ‘진짜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등급을 낮춰 자학하는 주체를 통한다. 블랙넛의 수용 담론에서 문제는 이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찌질하다’는 평가 속에 두면서 결국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이상과 어긋나는 비정상성을 재확인하는 담론적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찌질하다’는 것이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은 제기되지 않으며 여전히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우월성은 도전받지 않는다. 찌질한 자신의 상태를 대신 표현해주는 그가 고맙든 찌질한 일베의 우두머리든 상관없이 비정상으로서의 남성성은 주변화된, 모자란, 결여된 것일 뿐이고, 따라서 그 결여는 손쉽게 폭력으로 그 간극을 메우려는 ‘공격적 남성성’ 또는 호전성의 코드로 변환될 수 있다.

28) 블랙넛은 여기가 한계인가(<http://hiphople.com/6824019>) 게시글의 댓글 (2016.4.4).

이에 대해, 힙합의 ‘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멋있다’라는 이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힙합 수용 담론은, 상당 부분 미국의 힙합을 기준으로 삼고 몇 가지의 키워드를 모사해 ‘힙합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소비된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그 장르의 문법이고 그것이 멋있는 것이다”라는 진술은 얼핏 보기에 장르의 진정성에 대한 팬덤의 당연한 소비 행태 같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자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는 것을 생략하고 탈맥락화한 후 이를 장르의 진정성 자원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화되는 것, 그 발화와 발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서를 ‘미국’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문제다.

‘찌질한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힙합이라고 하더라도 상태 묘사 이후의 발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은가? 또는 ‘나의 상태’가 어떻게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맥락에서 제리케이의 “You’re not a man”은 현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질문을 던진다는 것(블럭, 2015), 그리고 그가 강력하게 블랙넛의 음악을 비판했고 그래서 상호 비프가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지도 모른다. 남성성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찌질한 나’가 어떻게 찌질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 찌질하다는 말의 의미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2. 멸시와 비판: 표현의 한계 또는 남성성의 불안

블랙넛에 대한 비우호적인 반응은 2016년 들어 본격화되었다. 일련의 디스곡 때문인데, 타이거 JK와 윤미래에 대한 언급, 타블로와 강혜

정 언급, 제리케이를 비롯해 MC메타 등 타 래퍼 비판, 평론가에 대한 공격 등 일련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전보다 그에게 비우호적인 반응이 더 커졌다. 그런데 블랙넛에 대한 비우호적인 반응과 관련해, 힙합 엘리 게시판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편이고 다른 여타의 일반 게시판처럼 무조건적인 ‘일베충’ 타자화로 가지는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일베라는 낙인을 찍기보다 혐오 표현이 비윤리적이라는 측면에서 논의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²⁹⁾ 블랙넛을 비판하는 이들은 힙합의 팬덤으로서, 블랙넛의 혐오 표현이나 비윤리성이 힙합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³⁰⁾

근데 사회적 법, 윤리를 벗어나는 정도의 표현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거죠. 왜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거니까요. 어떤 사람이든 타인에게 정도이상의 인격적 모독을 듣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는 유일무이한 조건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책임과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범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게 법, 윤리, 도덕입니다. 성희롱도 폭력입니다. 내가 기분나쁘고 화나서 띠꺼운 새끼 흠씬 두들겨 패주면 그게 힙합입니까? 그냥 양아치 새끼죠. 랩 가사로 누구 성희롱하는 것도 다를 바 없어요.³¹⁾

29) 물론 이는 게시글의 경우로 한정해서이고, 댓글들의 반응을 아울러 살펴보면 달라질 수 있다.

30) 저질이라거나 더럽다는 등, 비속어를 쓴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는 공적 언어 사용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1) 엽간하면 저번글을 마지막으로 엘이에 글 안쓸라고 했는데(<http://hiphople.com/6160134>) 게시글(2016.1.22).

펀치라인 애비 2 끝나고 나래 반응이 나랑 똑같다. 그냥 무작정 자정 작용 안거치고 씨부리는게 솔직하고 멋있는게 아니다. 키디비나 윤미래가 성희롱으로 고소했어야되는데 왜 조용한지 모르겠다. 힙합이 자유로움을 추구한다고 해도 (중략) 이걸 펀치라인이라고 내뱉는 래퍼를 어떻게 리스펙 할 수가 있을까³²⁾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표현의 한계 담론은 철저하게 ‘개인의 권리’를 주목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실제 인물에 대한 성희롱, 즉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다. ‘김치녀’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경우는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해당 표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에도 욕설이라는 점에서의 불쾌감이지, 그것이 갖는 여성 멸시나 ‘여성 혐오’적인 속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힙합의 ‘여성 혐오’적 속성은 당연한 힙합의 코드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더 많다(김수아, 2015).

따라서 이러한 표현의 한계 담론은 블랙넛의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 폭을 좁힌다. 이는 자유와 권리 담론이 현재의 청년 세대에게는 주요한 인식의 틀이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 때문에 오히려 특정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이거나 암시적인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 또한 드러내어준다.

한편 ‘일베충’으로 블랙넛을 타자화하려는 경우는 힙합 장르를 구원하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랙넛이 ‘일베충’이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쓴다고 주장하는 것은, 힙합은 멋있는데 ‘일베충’

32) 블랙넛은 여기가 한계인가(<http://hiphople.com/6824019>) 게시글(2016.4.4).

은 루저이기 때문에 힙합의 멋을 해치고 따라서 블랙넛은 힙합의 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힙합이 많이 변했다는게 느끼는게 예전같으면 블랙넛 같은 빵셔* 병* 인생들은 힙합 씬 자체에 끼지도 못했음 예전에는 힙합 = 멋있는 것, 간지, 잘나가는 형, 잘 노는 친구들, 잘나가는 친구들 이런 느낌이었고 힙합팬들도 그런걸 추구했는데 이젠 워낙 힙합팬들 자체가 찌질하고 아다같은 빵셔* 인생 왕따당하고 맨날 돈뜯기고 여자도 한번 못사귀어 보고 맨날 찌질거리면서 세상 타하는 미래 예비청년 백수들이 대다수인 지라 자기와 동일시되는 공감할 거리가 많은 블랙넛같은 인간쓰레기 빵셔*을 좋아하는 듯. 일베*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런가.³³⁾

물론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동의를 얻지 못한다. 흔히 인터넷 상의 여타 공간에서 블랙넛은 일베이기 때문에 쓰레기이고 그의 팬이라면 일베 이용자라고 당연시하는 것이 위의 글에 드러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힙합엘이 팬 포럼 자체가 일베 사이트와 그 이용자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아니며, 블랙넛의 경우 일베 이용자인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베 사이트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악과 분리해서 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된다.³⁴⁾

블랙넛을 ‘일베’라고 해 타자화하는 것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규

33) 요즘 국힙은 블랙넛 같은 아다 ‘일베충’들이 씬을 가득채운 듯(<http://hiphople.com/4935521>) 게시글(2015.9.1).

34) “일베가 병*들이라는 건 사회 대다수가 동의합니다. 근데 여긴 힙합커뮤니티고 콘텐츠로 평가하는거죠”(<http://hiphople.com/4393809> 댓글)와 같은 반응이 대표적이다.

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를 비정상화하는 결과를 낳고, 모든 문제를 일베로 치환해 일베가 아니라면 윤리적이라는 이분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무조건 ‘일베충’의 음악이라며 도려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것을 블랙넛에게 부여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서(혹은 내 눈 앞에서) 치우면 안전해진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남성성의 위기를 체현하는 그의 음악에 대한 열광과 멸시의 상반된 반응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힙합 팬덤이 블랙넛의 가사를 단순한 일베충의 문제로 타자화하지 않으며, 예술 내에서 표현의 한계에 대한 문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의미 있는 담론 진행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현’의 문제로, 다시 말해 ‘혐오 표현’이라는 문제로 블랙넛의 음악을 프레이밍(framing)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은 혐오 표현과 예술의 한계,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라는 차원보다 남성성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이때 팬덤 사이에서나 평론으로 전개된 논의에서 한 가지 더 논의하여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블랙넛의 표현이 공격적이거나 호전적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특정한 경우(여성과 성 소수자 및 자신보다 못한 남성들)로 지정되는 것은 남성성의 불안과 관련된다. 따라서 표현의 윤리나, 인권 존중과 같은 가치와 담론으로 이 불안을 제거할 수 없다. 블랙넛의 거울 이미지는 현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개별 남성 주체들에게 부여하는 불안과 고통을 타인에 대한 공격의 형식으로 표출한다. 그러나 이렇게 그 상태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권력 관계를 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는 흑인의 랩 음악이 갱스타 랩과 같이 폭력성의 표현을 통해 그들의 자유와 전복성을 드러내는 순간에도 인종적 타자의 환상, 흑인의 비정상성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다(White, 2011). 그러므로 블랙넛에 대한 논의는, 현재 청년 세대의 남성성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재구성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남성성의 기준이 여성을 성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는 점을 인식한 다음에 우리는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그 관계 즉 ‘사랑’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블랙넛은 어떻게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이는 그 개인의 연애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데이트 비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또는 않을 것 같은—‘김치녀’를 비난하는 현재의 청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한국’ 힙합은 어떻게 ‘미국에서 하는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진정하다’는 진정성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5. 결론

힙합은 남성성의 문화로 인식되고 진정성이라는 코드, 즉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코드가 장르 문법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장르적 특성에 따라 소수자 혐오와 같은 정서도 자신의 삶에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장르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팬덤에 의해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이 글에서 필자들은 이러한 힙합 장르의 특성과 관련해, 래퍼 블랙넛을 사례로 한국 힙합에서 남성성이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또 수용자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보았다.

잉여와 루저로 대표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담론은 주로 청년 남성

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 위기와 가부장제의 위기가 청년 세대의 위기로 과하게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주체들은 자학이나 혐오를 선택한다는 것이 현재의 온라인 중심 남성 청년 담론들의 진단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힙합 가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블랙넛과 같이 스스로를 찌질이, 루저로 정체화하는 래퍼들의 가사에서는 극적으로 표현된다.

물론 예술에는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가사는 랩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어떠한 표현의 정도를 대상으로 예술의 규제를 논의하는 것 역시 이르다. 한국 힙합이 한국 사회 남성성의 문제를 반영하며, 더 나아가 이를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유통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노래하는 힙합의 문법에서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로즈(Rose, 2008)는 힙합이 진정성의 장르이므로 현실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 현실의 묘사가 갖는 효과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아직 낭만적 이성애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1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블랙넛의 음악은 가난하고 못생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상상된’ 한국 여성에 대한 분노를 전달한다. 현재 한국의 ‘여성 혐오’ 논란이 상당 부분 ‘상상된 한국 여성’에 대한 분노에 기인한다는 논의들을 감안할 때(윤보라, 2015) 블랙넛의 랩이, 이것이 진정 현실을 묘사하는 것인지는 차치하고, 초래하는 효과 자체를 단순히 바라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한국 힙합 내에서 이런 재현들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힙합에서 이러한 재현이 사라져야 하는지는 별개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남성성(들)과 여성성(들)이 재현되는 장르여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매개로 하나의 단일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찬양하면서 그에 도달하기 위

한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의 잘못된 원인으로 소수자를 지목하는 어떤 비-헤게모니적인 루저 남성성과, 돈과 여성을 사랑하는 스웨깅을 보이는 헤게모니적 남성성 사이의 대비가 존재하는 현재 한국 힙합의 남성성은 사실상 동일 기준의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항 대립적 구조는 본질적으로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며, 대립적인 두 항이 의미하는 바는 다양성이 아니라 단일성이다. 다양한 남성성(들)의 문제는 힙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지만, 이를 사회를 반영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루저 남성성의 재현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칠 수는 없다. 로즈(2008)의 지적처럼, 사회문제라는 이유로 예술이 이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작품의 효과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힙합과 ‘여성 혐오’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여성 혐오’의 표현이 루저 남성성의 재현과 관련된다는 관찰 아래 이를 래퍼 블랙넛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경제 위기가 심화된 한국 사회에서 남성성의 위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혐오 표현이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랩 음악이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진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힙합이 시작된 미국에서 장르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인 진정성 담론과 남성성의 문제가 한국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힙합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미국 힙합이 착종되는 과정에서 진정성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구미정, 「‘잉여’ 시대의 대학, 길 찾기」, 『현상과인식』, 37권 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3, 39~55쪽.
- 김상민, 「잉여 미학과 뉴미디어 문화」, 이광석 편, 『불순한 테크놀로지』, 논형출판사, 2014.
- _____, 「디지털 잉여 주체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한국 청년 세대의 주체성 위기와 극복의 가능성」,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2016.
- 김수아, 「힙합은 여성 혐오적 장르인가요?」, 『대중음악』, 15호, 한국 대중음악학회, 2015, 124~140쪽.
- 김수환, 「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 잉여에서 병맛까지」, 『Trans-Humanities』, 제4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2011, 101~123쪽.
- 김학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학』, 제49집 제1호, 한국 사회학회, 2015, 179~212쪽.
- 김홍중, 「청년 여성 프레카리아트의 얼굴」, 『한국문화연구』, 30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31~66쪽.
- 멜로, 「솔직함, 누구를 향한 무기가 될 것인가?」, 『힙합과 사회』 강연 (2016.4.20.), 2016.
- _____, 「우리시대가 낳은 돌연변이, 블랙넛」 (<http://hiphople.com/article/4935-606>), 2015.
- 박이은실, 「패권적 남성성의 역사」, 『문화과학』, 76호, 문화과학사, 2013, 151~184쪽.
- 박혜경, 「경제 위기 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과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27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1, 71~106쪽.
- 블록, 「뱅크스에서 벗어나라」, 『고함2.0』(2015.12.14), (<http://www.goham20.com/47421>), 2015.
- 안상욱, 「한국 사회에서 ‘루저문화’의 등장과 남성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1.
- 엄기호, 「신자유주의 이후, 새로운 남성성의 가능성/불가능성」, 권김현영 엮음,

-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2011, 141~160쪽.
- 오찬호, 『신계급사회가 정말로 두려운 이유』, 『황해문화』, 90호, 새얼문화재단, 2016, 28~44쪽.
- 윤보라, 『김치녀와 별거벗은 임금님들: 온라인 공간의 여성 혐오』, 윤보라 외, 『여성 혐오가 어땠다고?』, 현실문화연구, 2015, 9~46쪽.
- 임태훈, 『우애의 미디올로지: 잉여력과 로우테크로 구상하는 미디어 운동』, 갈무리, 2012.
- 천정환,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페미니즘 붐기’와 한국 남성성의 위기』, 『역사비평』, 116호, 역사비평사, 2016, 353~381쪽.
- 최지선, 『루저문화의 얼굴들: 장기하와 얼굴들, 붕가붕가레코드를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76, 오늘의 문예비평, 2010, 120~135쪽.
- 하승우, 『헬조선에서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까』, 『황해문화』, 90호, 새얼문화재단, 2016, 12~27쪽.
- 한윤형, 『루저는 ‘세상 속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황해문화』, 64호, 새얼문화재단, 2013, 348~359쪽.
- 함춘성, 『한국영화의 ‘루저’ 캐릭터와 원형 이미지(Archetypal images): <왕의 남자>』, 『영화』 4권 2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12, 207~232쪽.
- Adams, T. M. & Fuller, D. B., “The words have changed but the ideology remains the same: Misogynistic lyrics in rap music,” *Journal of Black Studies*, vol.36, 2006, pp.938~957.
- Chang, J., “Review: Keeping It Real: Interpreting Hip-Hop,” *College English*, vol. 68, no. 5, 2006, pp. 545~554.
- Connell, R. W., *Masculinit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Chodorow, N., *Individualizing Gender and Sexuality*, Routledge, 2011.
- Jeffords, S., *Hard Bodies: Hollywood masculinities in the Reagan era*, Rutgers Univ. Press, 1994.
- Kimmel, M., “Masculinity as homophobia: Fear, shame and silence in the construction of gender identity,” in H. Brod & M. Kaufman (Eds.), *Theorizing masculinities*, Sage, 1994, pp.119~141.
- Nayak, A. & Kehily, M., *Gender, youth and culture*, Palgrave, 2008.
- Rose, T., *The hip hop wars: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hip hop-and why it matters*, BasicCivitas, 2008.

- Weitzer, R. & Kubrin, C., "Misogyny in rap music: A content analysis of prevalence and meanings," *Men and Masculinities*, vol 12, no. 1, 2009. pp. 3~29.
- White, M., *From Jim Crow to Jay Z: Race, rap and the performance of masculinity in American popular cultur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1.
- Whitehead, S., *Men and Masculinities*, Polity, 2002.

*투고: 2016년 10월 10일, 심사완료: 2016년 10월 30일, 게재확장: 2016년 11월 5일

Discourses of masculinities and misogyny: Focusing Korean-hiphop and ‘Blacknut’ case

Sooah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Jong-Yoon Hong(Seoul National University, ICT Policy Research Center)

This paper tries to reveal how the masculinity of male Korean youth is constructed through the analysis of Blacknut and his music. Blacknut is not a popular star but he communicates with certain consumers of hip-hop and represents their emotion and sentimen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songs of Black Nut express and construct masculinity and how consumers understand and accept it. The fact that those who respond to economic crisis in these days choose self-torture or hatred is the diagnosis about the current discourse on online-centered male youth. This tendency appears similarly in the lyrics of Korean hip-hop and is expressed dramatically in the lyrics of rappers such as Blacknut, who identify himself as underdog or loser.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a contrast between the non-hegemonic masculinity that admires a singular, hegemonic masculinity and points out the pain to gain that and the minority as the wrong cause of the pain and the hegemonic masculinity that boasts of money and women, the symbol of masculinity in Korean hip-hop has a problem in that it has only one identical standard.

Keywords: masculinity, hegemonic-masculinity, misogyny, Korean-hiphop, authenticity